글로벌 IT 기업의 ESG 경영 연구

정지민*, 정지은**, 최정임***, 전순영****
* ** 한국교통대학교 융합경영학과 4학년
***한국교통대학교 융합경영학과 강사
****한국교통대학교 융합경영학과 교수
e-mail: *2049060@a.ut.ac.kr, ****syjun@ut.ac.kr

The Study of ESG Management in Global IT Companies

Jimin Jeon*, Jieun Jeong**, Jeongim Choi***, Soonyoung Jun****
* ** Bachelor's Course in Dept. of Convergence Business Management,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Lecturer, Dept. of Convergence Business Management,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Professor, Dept. of Convergence Business Management,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요 약

ESG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에서 발전된 개념으로,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영역에 대해 평가한다. 유엔 책임투자원칙(UN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UN PRI)에서 투자 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 ESG 요소를 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발표하였듯, ESG 지표는 기업에 있어 경영전략의 중대한 의사결정 근거이다. 그뿐만 아니라 외부고객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ESG 평가는 수용자가 기업을 선택하는 중요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과 중국의 ESG 정책 현황과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분석하고, 양국 IT 기업의 ESG 경영 현황을 공통점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요구되는 ESG 경영 전략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고자 한다.

1. 서론

ESG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에서 발전된 개념으로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라는 3가지 핵심 요소를 담은 용어이다. 이 용어는 유엔 글로벌 콤팩트(UN Global Compact, UNGC)가 2004년 말에 발표한 보고서인 "Who Cares Wins"에서 처음 등장했으며, 2년 뒤 유엔 책임투자원칙(UN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UN PRI)에서 기관의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할 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 ESG 요소를 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본격적으로 사용되며 글로벌 기업의 관심이 증대하기 시작하였다(신윤선, 김성현, 2024). 각 국가의 법적인 환경은 기업의 선택과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Sirmon & Lane, 2014; Williams & Aguilera, 2008). 국가의 환경적, 사회적, 법적 환경은 기업의 정신과 관행에 직접적인 변화를 일으키며(Baldini et al., 2018; Ortas et al., 2015), 이는 이해관계자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기업의 ESG 채택 프로세스를 자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lementino & Perkins, 2020; Dyck et al., 2019). 한국과 중국은 각각 다른 경제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문화나 역사적 배경 또한 다르다. 이에 양국의 기업들이 글로벌 ESG 경영 요구와 규제 환경 속에서 어떤 유사한 전략적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본 논문은 한국과 중국의 ESG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두 나라의 IT 기업들의 ESG 경영 현황을 공통점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양국의 ESG 관리 수준과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등을 파악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요구되는 ESG 경영전략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고자 한다.

2. 한·중의 ESG 동향

2.1 한국의 ESG 정책 동향

한국 기업 공시 의무는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통해 규율되고 있었으나, ESG 관련 공시는 대기업 중심의 자율적인 공시가 대부분으로, ESG 관련 공시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져 있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ESG를 주목하기 시작했고, 한국 정부가 2021년을 'ESG 경영 확산의 원년'으로 선언하며 관련 정책을 강화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시작으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하고, 이후 2022년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며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다(김자인, 2024). ESG 경영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기업의 ESG 위원회 설치 비율이 상당히 증가하였다. [표 1]과같이 ESG 위원회 설치 비율이 2021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하였다(17.2%에서 52.1%로). 이는 2021년에 비해 ESG 위원회가 3배 이상 증가함을 의미한다(47개 사 중 17.2%에서, 309개 사 중 161개 사).

[표 1]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23 상장사 ESG위원회 현황

(단위: 개)

구분	전체 상장사수	ESG위원회 설치 상장사수	총수일가 참여 회사
총계	309	161	6
비율	100.0%	52.1%	1.9%

한국 ESG 기준원은 2021년,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과 환경, 사회 모범규준을 개정하여 발표하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형 ESG 평가 핵심 공통 사항인 'K-ESG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MSCI ESG Ratings에서는 중하위권 수준의 평가를 받기 때문에 기존 한국의 ESG 평가는 국제적 요구에 부합하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조되고 있다(김성진, 안태혁 2022).

2.2 중국의 ESG 정책 동향

중국은 2016년~ 2018년 경 미·중 무역 분쟁이 발발하기 직전까지 글로벌 시장으로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추세였다. 2018년, 중국의 A주식이 MSCI 글로벌 지수 및 MSCI 신흥국 지수에 편입되었고, 이는 글로벌 자금의 유입이 활성화되는 발단이 되었다. 중국증권감독위원회는 '상장회사 지배구조 표준'을 개정하고 중국 ESG 정보공개를 위한 틀을 만드는 등 비재무적 정보 공개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기금협회는 '중국 상장회사 ESG 평가체계 연구보고' 및 '녹색투자 가이드' 등을 발표하며 상장기업의 주체적인 ESG 관리 및 공시를 위한 유인 방안을 마련하였다(2023. 안지영 외). 중국 최대 보험 관련 기업 중 하나인 핑안그룹과 중국 경제정보원은 ESG 리스크를 관리하고, 평가 모델 구축, 투자 포트폴리오 관리를 위해 중국형 ESG 가이드라인인 'CN-ESG 평가 시스템'을 발표하였다(임팩트 온, 2021). 2020년, 시진핑 국가주석은 UN 총회에서 2060년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공개하였으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향후 30년간 친환경 산업에 100조 위안, 연평균 56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 중국 정부는 2026년부터 중국 주요 3개 거래소인 상하이, 선전, 베이징 거래소에서 ESG 공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 증권 거래소 전체 시장 가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450개 기업이 대상이 된다(THE BUSINESS TIMES, 2024).

3. 카카오·텐센트 ESG의 비교: 공통점

본 논문에서는 대상 기업으로 한국의 카카오와 중국의 텐센트를 선정하였다. 카카오와 텐센트는 양국의 대표적인 IT 기업이며 규모와 자본, 시가총액이 각 국가의 선두에 있다. 양사는 IT 분야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 중이며 그 효과로 국내외 ESG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3.1 환경(Environment)

카카오와 텐센트는 파리협약 회의에 대한 영향으로 탄소배출 감축을 핵심 목표로 두고 있다. Scope 1, Scope 2, Scope 3의 배출 최소화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IT 산업 특성상 인프라 구축에 비용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RE 100을 목표로 한다. 또,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오피스 전력을 대체하려는 환경정책 또한 유사하다.

- 카카오

'Net zero' 선언을 통해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하는 목표를 수립했으며, 기후 위기 대응 원칙 액티브 그린 이니셔티브(Active Green Initiative)를 발표했다. 탄소배출을 Scope 1, Scope 2, Scope 3 세 가지 범위로 분류하고 2030년까지 2021년 대비 Scope 1, 2의 배출량을 40% 감축, 2040년까지 100% 감축을 달성 목표로 한다. Scope 3 배출량은 2030년까지 2021년 대비 17% 감축을 목표로 세웠다.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사내 환경 교육을 전 직원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교육 프로그램에 이어서 사내 카페에서 플라스틱 컵 대신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는 친환경 캠

페인을 진행해 직원들의 자발적인 환경 보호 활동 실천을 장려하였다.

글로벌 표준	카카오 안에서	카카오를 통해	카카오와 함께
글로벌 환경 기준 가입 · 규제 대응 인증 가입	주요 환경지표 관리·운영 · 환경 데이터 공개 · 친환경 데이터 센터	서비스를 통한 친환경 기여 · 전자증명서 전자문서 · 모빌리티 전기차 도입 · 모빌리티 에너지 절감 효과 · 프렌즈 친환경 포장 확대	유저 및 파트너와 함께하는 친환경 활동 · 모두의행동 '그린 디지털' · 같이가치 산불 조림 모금 · 메이커스 새활용 · 같이가치 환경의 날 캠페인

<그림 1> 액티브 그린 이니셔티브

- 텐센트

Scope 1, Scope 2, Scope 3을 포함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 폐기물 관리 등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있으며, 생물 다양성 성명을 발표해 생태계 보호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203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결정해, 2021년을 기준으로 Scope 1, Scope 2 배출량 70% 감소, Scope 3에서는 배출량의 30% 감소를 목표로 한다.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친환경 운영의 중점은 폐기물 관리의 3R(Reduce, Reuse 및 Recycle), 신재생 에너지 사용 등이 있다.

3.2 사회(Soci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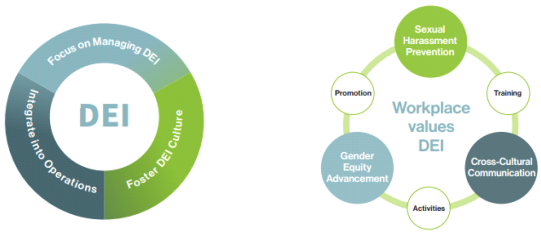
양사 모두 개인정보와 데이터를 보호해, 이용자의 안전 보장에 집중한다. 또한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해관계자와 협력을 강조하며,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추구한다. '카카오 같이가치'와 '텐센트 자선 플랫폼'같은 공익 실현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임직원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성별, 연령, 국적 등에 상관없이 모든 개인의 가치관을 존중하는, 평등한 근무 환경을 제공한다. 임직원의 성비 격차를 줄이고 이사회 내 여성 임원의 비율을 높이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카카오

IT 기업 고유의 ESG 영역인 '기업의 디지털 책임(Corporate Digital Responsibility)' 실천을 위해 노력 중이다. 모든 사람이 동등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리어 프리 이니셔티브'를 통해 그 환경을 조성하였다. 또, 디지털 범죄, 유해 내용 등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기반 필터링 기술 '세이프봇'을 도입해 유해한 댓글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있다. '카카오 같이가치', '카카오임팩트' 등 소셜 플랫폼을 활용하여 사회 공헌과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 텐센트

기술 혁신, 문화 활성화, 산업의 디지털 업그레이드, 지역 사회 협력을 통한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 DEI(다양성, 평등, 포용성)원칙을 기업 문화와 일상 관행에 통합하겠다는 결의를 보였다. 2023년 세계 지식 재산권의 날에는 여성 특허 보유자들의 성과를 부각했으며, 이러한 특허는 음성 인식 및 진동 피드백과 같은 기술로, 시각 장애인을 돕는 등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 미성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안전 메커니즘을 도입했다. 디지털 기술과 플랫폼의 이점을 이용한 '텐센트 자선 플랫폼'에는 수천 개의 자선 기관이 가입하고 있으며, 130,000건 이상의 모금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그림 2> DEI 접근방식

3.3 지배구조(Governance)

회사의 투명한 경영을 위해 독립적인 이사회를 운영한다. 이사회 구성원으로 사외이사를 선정하거나, 여성 임원의 수를 늘리는 노력을 하고 있다. 빠르게 변하는 IT 산업의 환경에 따라 리스크 관리 수준을 높이고 있다. 양사는 준법 감시와 윤리경영을 위해 기업 구성원이 지켜야 할 규범과 관리 체계를 수립해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 양사 모두 정보 공개 측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기업 공시 의무화 제도 같은 ESG 관련법 제정과 각 거래소의 ESG 정보 공개 가이드가 양사의 ESG 정보 공개 활동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카카오

윤리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추구하며, 모든 이해관계자와 신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윤리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 중이다. 전문성 및 독립성, 다양성을 갖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를 바탕으로 투명한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이사회 산하의 ESG 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영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재무 및 비재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 텐센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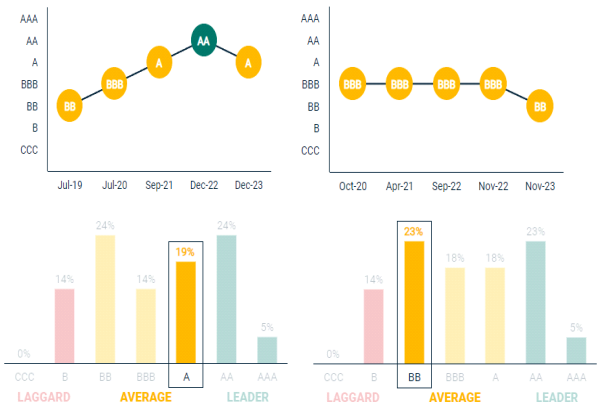
'선샤인 코드 행동 규범', '부정행위 신고 제도' 등의 규제안을 통해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경영을 추구한다. 2022년 새로 개정된 중국의 '반독점법' 및 형법 등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기 위해 지침을 갱신했다. 이사회는 전무이사 1명, 비상임이사(NED) 2명, 독립적 비상임이사(INED) 5명으로 8명의 이사로 구성된다. NED는 텐센트의 지배 주주 Naspers

의 고위 경영진 출신이며, INDE는 다양한 산업 배경을 가진 전문가들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주주와 회사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한다. 또, 여성 이사 비율은 25%로 2030년까지 여성 이사 비율을 30%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4. ESG 평가 분석

카카오의 MSCI 평가 등급은 2017년 B등급에서 점차 상승해 2021년 A등급, 2022년 AA등급, 2023년 A등급을 받았고, 인터랙티브 미디어 & 서비스 산업 내 25개 기업 중 평균 수준이다. 한국 ESG기준원의 KCGS 평가에서 2020년까지 B+등급을 유지했으나, 2021년부터 3년 연속 A등급을 받았다.

특히 환경 분야는 2019년 D등급에서 2021년 A등급으로 크게 상승하였다. S&P Global 지속가능성 평가에서 2024년 Top 1%로 평가되었다. 텐센트의 MSCI 평가 등급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BBB 등급을 유지하다 2023년 BB등급으로 하락하였다. 인터랙티브 미디어 & 서비스 산업 내 61개 기업 중 평균 수준이다. Sustainalytics 지수는 19.3으로 평균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소프트웨어 & 서비스 산업 내 1,104개 기업 중 339위를 차지하였다. S&P ESG Score 49점으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 모두 산업 평균보다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그림 3> MSCI 평가 (좌: 카카오, 우: 텐센트)

5. 결론

기업의 이해관계자인 투자자, 투자기관은 ESG를 하나의 비재무 지표로 활용하고 소비자는 ESG를 소비의 이유로 두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ESG 규제, 공시가 강화됨에 따라 기업의 지속적인 경영을 영위하는 데 있어 ESG는 선택이 아닌 필수 불가결한 시대가 되었다. 기업은 환경 및 사회, 지배구조적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을 인식하였고, 이는 ESG의 비재무 지표의 핵심 내용이 되었다. ESG 경영에 대한 높은 관심과 수요에 따라 기업은 환경 및 사회적 책임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지속 가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양사의 ESG 활동을 비교한 결과, 환경적 측면에서는 탄소배출 감축, 사회적 측면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다양성 존중, 지배구조적 측면에서는 윤리경영과 이사회 여성 임원 비율 증가가 공통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략은 한국과 중국 외의 다른 국가의 기업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대표적인 ESG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국제적으로 ESG 공시와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단편적인 ESG 정책이 아닌 장기적인 ESG 정책과 수행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업은 기존의 비즈니스와 사회적 가치를 연계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ESG 경영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1) 신윤선, 김성현. (2024).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ESG 디자인 전략 비교 연구.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19(3), 423-432.
2) Sirmon, D. G., & Lane, P. J. (2004). A model of cultural differences and international alliance performance.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35(4), 306-319.
3) Baldini, M., Maso, L. D., Liberatore, G., Mazzi, F., & Terzani, S. (2018). Role of country-and firm-level determinants in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disclosure. Journal of Business Ethics, 150(1), 79-98.
4) Clementino, E., & Perkins, R. (2021). How do companies respond to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ESG) ratings? Evidence from Italy. Journal of Business Ethics, 171(2), 379-397.
5) 공정거래위원회. (2023).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공개". www.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46480. (2024. 6. 3.).
6) 김자인. (2024).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교통부문의 주요 과제. 월간 공공정책, 220, 23-25.7.
7) 김성진·안태혁(2022). ESG 경영의 현황과 과제-한· 일 철강산업의 현황을 중심으로. 일본근대학연구, 77, 235-262.
8) 안지영 외. 2023. 중국의 ESG 추진 현황과 한·중 정책 비교 및 대응방향. 협동연구총서
9) 임팩트 온. (2021). "K-ESG 전에 중국 CN-ESG가 있었다". 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576
10) THE BUSINESS TIMES. (2024). "China proposes new ESG rules to keep up with Europe". www.businesstimes.com.sg/esg/china-proposes-new-esg-rules-keep-europe. (2024. 6. 3.).
11) 카카오 2020-2022년 ESG 보고서
12) Tencent 2020-2023 ESG Report